

개인화 시대의 가족 변화¹⁾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황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1. 들어가며: ‘가족위기론’의 편향

21세기 한국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때 가장 핵심 요인으로 주목받는 것 중 하나는 가족의 급격한 변화이다. 최근 코로나 19 위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더욱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가올 인구 위기, 이른바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현상은 매우 거시적인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위기로 이야기되지만, 결국 그 기초에는 가족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가족을 구성하는 개별 시민들의 삶이 놓여 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걷어내고 가족의 다양한 변화와 그 바탕에 있는 개인들의 삶의 역동성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가족의 변화는 가족 규모

의 축소, 1인가구의 증가, 비혼과 만혼의 확대, 합계출산율의 지속적 저하, 그리고 가족 다양성의 증대로 요약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정상가족 모델이 약화되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가족 변화가 초래할 ‘나쁜 일’들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관련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의 급격한 변화 현상을 가족 위기로 보는 부정적 인식은 다가올 미래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나름의 순기능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족의 역동성을 부정적 편향, ‘가족위기’라는 하나의 렌즈로만 바라본다면 오히려 객관적 분석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에 개입하는 시도가 기존의 ‘정상가족’ 고정관념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부정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으며, 가족지위를 이

1) 이 글은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연구보고서 (송효진, 황정미, 조은주 외, <개인화 시대, 미래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포용적 법제 방안 구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43-01)의 제2장 “우리 사회의 가족 변화 및 미래 전망” 중 일부 내용을 요약 및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유로 한 편견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우려도 있다.

한국 가족의 변화를 전망하고 향후 정책 과제들을 논의할 때 가족위기론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다가올 미래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폭넓게 이해하는 균형 잡힌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과도한 위기론은 가족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복잡성(complexity)과 다층성(multitude)을 고르게 분석하지 못한 채 특정한 요인만을 강조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편향성으로 인해 정책 대안의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사회조사 결과들은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과 태도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며, 법률혼이 아닌 동거 관계, 미혼(비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관계, 그리고 혼인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함께하는 관계라면 모두 가족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 즉 가족의 현실적인 다양성을 폭넓게 수용하는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2019; 변수정 외 2017).

또한 가족은 단지 사적 영역, 개인의 친밀성과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공동체의 재생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국가-시장-가족을 연결하는 자원의 분배와 재분배, 사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시민의 양성과 신뢰 기반의 형성,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교차성과 제도적 맥락 위에서 가족의 변화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청년과 여성들이 결혼·출산을 통해 기존의 가족제도로 진입하기를 꺼리거나 지연하는 현상은 단지 전통적인 가족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평등과 공정, 세대 내와 세대 간 관계에의 민주성 등 새로운 공공성에 대한 요구도 내포되어 있다. 가족

은 단지 사적인 개인생활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기초적인 장으로서 내부의 공공성에 대한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진미정, 2015; 진미정·한준·노신애, 2019).

가족변화를 이해하는 심층적 접근을 위해 이 글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활용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가족 변화를 진단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개념으로 개인화를 주목한다.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탈현대사회 혹은 2차 근대의 역동을 포착하는 이론적 개념이며, 또한 20세기 후반 이후 가족의 변화와 다양한 가족의 확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도 주목을 받았다(Beck & Beck-Gernsheim, 2002; Wall et. al. 2010: 162). 무엇보다도 개인화 개념은 후기 근대의 자본주의 구조변동과 노동생애주기의 재편, 노동 및 가족생활의 탈표준화(destandardization)를 핵심으로 하며, 이러한 논의는 후기 현대의 사회변동과 다양한 가족의 출현을 내적으로 연결하여 설명하는 장점이 있다.

둘째, 가족의 변화를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위기 패러다임에 치우쳐 부정적 측면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가족의 미래 시나리오 등을 참조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령, 1인가구의 증가, 비혼과 만혼의 확산은 한국뿐 아니라 OECD 회원국으로 통칭되는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미 경험해 온 현상이며 인구학자들이 ‘제2차 인구전환’(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Lesthaeghe, 2010; 2014)이라고 개념화한 보편적 흐름이기도 하다. 물론 인구전환이나 가족 변화의 속도 및 양상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지역별 국가별로 상이한 역사적 경험, 제도적 유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차이와 다양한 경로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정책 논의를 심화하는 데 중요한 준

거점이 될 것이다.

2. ‘개인화’와 가족의 미래: 역동성과 다양성

1) 개인화(individualization)와 가족 다양성

개인화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의 명저 <위험사회>의 중심 주제로 주목을 받았으며 이후 2차 현대(second modernity), 세계시민사회와 세계위험사회, 2차 현대의 다양성(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등 벡의 확장된 이론에서도 핵심 주제로 논의되었다. 개인화 명제는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탈전통화, 즉 전통적 지배와 부양의 형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 개인은 기존의 제도로부터 벗어나 과거의 속박에서 해방되지만, 다시 현대 사회의 새로운 책무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된다(dis-embedding and embedding). 셋째, ‘내 자신의 삶’을 추구하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강제된 것이며 진정한 개인성을 결핍하게 된다. 넷째, 체계 위험이 개인의 일대기(biography)로 내면화된다. 다시 말해 사회체제로 인한 결핍이 개인적 선택의 결과 또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발현된다(Beck and Grande, 2010: 420).

이처럼 개인화는 전통에서 해방되지만 다시 새로운 구속 속에 포획되는 과정, 내 자신의 삶을 추구하지만 구조적 위험을 내면화하는 양면성 내지 모순적 모습을 띤다. 개인화 개념은 이미 널리 쓰이고 있지만 상호 모순적인 변화를 함께 아우르는 양면성 내지 포괄성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야를 넓혀 보면 개인화의 양면성은 두 가지 이론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벡은 현대 사회가

1차 현대와 2차 현대라는 불연속적 변화 과정을 겪어 왔다고 본다. 1차 현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업화와 현대사회의 등장이라면, 2차 현대에서는 1차 현대의 성공 덕분에 역설적으로 부작용과 비효율, 역기능이 증가한다. 산업 현대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시장경제의 글로벌화 덕분에 나타나는 전지구적 대규모 재정 위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전통에서 해방된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이 현대사회의 기본 원칙이 되었지만, 2차 현대에서는 노동시장, 교육제도, 직업 체계, 복지정책 등의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개인의 취약성과 사회적 배제가 확대되는 문제들이 나타난다.

둘째, 벡은 자신이 처음 제시한 개인화는 유럽 사회에 기반한 모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2차 현대 이론의 기본 개념들은 서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상이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맞게끔 해체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개인화의 모델이나 경로가 지역별 국가별로 다를 수도 있다. 유럽의 경우 1차 현대에서 정치 혁명으로 쟁취된 기본적 시민권과 문화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개인화가 진행되었지만, 아시아나 남미 등 다른 지역에서는 문화적 민주주의 기반 없이 다른 형태의 개인화 경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인화의 맥락이나 경로는 상이할 수 있지만, 가족 영역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가족 다양성의 확대, 가족 주기의 탈표준화이다. 시장 경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 일대기’를 추구하는 변화를 가속화하며, 여성의 삶에서도 ‘나 자신의 인생’을 기획하고 추구하는 논리가 확대되는 반면 연대의 의무는 약화된다. 산업화 시대의 성별 분업을 토대로 하는 핵가족의 표준적 가족주기는 점차 해체되며, 새로운 모습으로 유연화 또는 다양화된 가족주기가 나타

난다. 벡-게른스하임의 표현에 따르면 가족은 ‘필요의 공동체’에서 ‘선택적 관계’로 변화한다(Beck-Gernsheim, 2002). 이때 ‘선택적 관계’란 전통적 가족규범에서 벗어나 원하는 대로 관계를 선택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가족을 꾸려나가기 위해 선택하고 결정하며 감당해야 할 개인적 과업들은 더욱 많아진다. 가족의 일상은 상이한 사회적 제도들(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의 노동 시간, 학교와 유치원의 하교 시간, 마트의 폐점 시간, 집과 직장의 거리, 대중교통 운행 시간)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으며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너무 어려운 기획의 연속이다. 개인화된 일상이란 곧 DIY(do it yourself!) 일대기, 체계에서 발생하는 모순과 결핍을 개인의 해결책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과정이다.

2) 미래 가족 전망과 시나리오 분석

2016년 UN 국제 가족의 날에 즈음하여 세계경제포럼(WEF)는 “미래 가족은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정책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이 브리프에서는 만혼과 비혼의 증가, 1인가구와 동거, 한부모 가구, 동성결혼 등 비정형 가족의 증가, 혼외 출생의 증가 등 인구통계에 나타난 변화의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양극화에 따른 빈곤의 영향, 이민 배경 가족의 차별과 배제, 가정 생활에서의 젠더 불평등 등을 언급하면서 책임과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Berrington & Vitali, 2016).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는 국내외 연구들은 광범위한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가족의 미래에 영향

〈표 1〉 가족 미래 전망: 거시 환경요인과 분석의 기본축 - 기존 문헌연구 분석

연구 문헌	예측하려는 가족 현상	거시 환경요인 / 기본 축
OECD (2012)	2030 가족/가구 구조 (Family Landsca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변수: 경제성장/ 경제 안정성, 인간중심 과학기술의 도입 • 거시 요인: 노동시장, 인구변화, 사회불평등, 사회문화 가치관 • 행위자 요인: 개인 행위자, 시민사회와 NGO, 정책 결정 및 실행
EU (Kapella et. al., 2011)	2035 EU 가족의 웰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평등(사회, 문화, 경제, 젠더, 종족 등) • 이주 • 교육과 가치(values in society) • 돌봄 체계
Montgomery (2007)	2025 미국 가족 변화 - 가족 변화가 남성·여성·아동에 미칠 영향 - 젠더와 결혼, 재생산, 아동기, 부모 역할의 관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상황: 빈곤/ 장기호황 • 문화: 자유주의 vs. 보수·전통적 가족가치
강홍렬 외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사회에서 가족의 중심 기능(재생산, 교육, 정서, 경제, 복지) 변화 - 가족구성원의 행동양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 사회의 거시 현상 - 사회인구학적 변화 - 과학기술적 변화 - 노동시장 변화
장해경 외 (2012)	- 2030 가족의 미래 전망, 가족 변화와 삶의 모습 예측 (가족 미래 시나리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 증가/감소 • 불평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증가/감소 • 가족가치: 개인중심가치의 강화/약화

주: 각 문헌들을 필자가 요약하여 정리함

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변화나 트렌드를 변수로 설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주요 변수들의 변화 방향에 따라 몇 가지 유의미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최항섭 외, 2006).²⁾ 가족의 변화는 사회 전반의 거시적 변동(이른바 메가트렌드)과 연동되어 있으며,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거시적 방향 진단 및 시나리오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미래를 논의하였다(OECD 2012; 장혜경 외, 2012; 2014; EU 2011; Montgomery, 2007; 강홍렬 외, 2006). 외부 환경요인 뿐 아니라 행위주체들(개인, 정당, 국가 등)의 변화도 가족의 미래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 전망에서는 가족 현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방식보다는, 가족의 복합성과 다층성(multitude)을 일종의 ‘가족풍경(family landscape)’으로 읽어낸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OECD, 2012).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는 메가 트렌드는 경제 성장 여부와 과학기술의 속도 및 인간중심적 수용, 노동시장과 인구 변화, 사회 불평등, 이민과 사회이동, 교육, 가치관, 문화, 돌봄 체계 등 매우 광범위하다. <표 1>은 미래가족 시나리오 분석들이 가족 현상 및 거시 환경 요인들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EU Family Platform(Kapella et al., 2011) 연구진들이 발표한 2035 가족미래 시나리오 보고서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 보고서는 ‘승자와 패자’의 이분법적 플롯보다는 ‘도전과 대응’ 플롯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며, 가족의 미래에 대한 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분석의 네 가지 기본 축은 기회구조(불평등), 이민, 교육과 가치, 돌봄이다. 첫 번째 축인 불평등

과 기회구조에서는 경제적 계층 격차와 젠더 불평등 뿐 아니라 인종, 종족, 종교, 문화적 차원의 불평등을 다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돌봄 체계, 교육 체계, 가치관의 문제와 더불어 이민정책을 미래 전망의 기본 축으로 다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상이한 상황들을 조합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는 가족의 미래 변화를 진단하는 데 중요한 특징들을 담고 있다. EU Family Platform 보고서에서는 각각의 시나리오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지만, 가족의 미래 모습을 보여 주는 여러 예시들과 키워드, 주요 트렌드의 특성을 요약해 본다면 “개인 중심의 협상과 선택”, “전통 가치에 실용적 적응”, “각자도생 사회 속 위험 가족”, “박이 두려운 코쿤(요새) 가족”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유럽뿐 아니라 한국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각 유형별 특징을 아래에 소개한다.

첫 번째는 “개인 중심의 협상과 선택”이 강조되는 시나리오이다. 물질적 삶의 질이 향상되며 가족생활에서 유연성과 선택의 자유가 확장된다. 결혼이나 가족규범이 유연해지고 개인화된 생활방식이 확대되며, 다양한 주거 방식(living arrangement)에 부응하는 새로운 주택정책 수요가 높아진다. 다른 한편 가족관계가 정해진 규범보다는 복합적인 협상의 영역에 맡겨짐으로써 개인의 책임성이 높아지며 때로는 세대 내·세대 간 갈등의 소지가 커진다. 고숙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여성의 안정적 취업이 확대되며, 돌봄을 비롯한 공적 사회서비스가 체계화된다. 개방적인 사회분위기에서 다양한 이민이 수용되며, 특히

2) 시나리오 분석에서 주로 쓰이는 플롯은 ① 승자와 패자 플롯, ② 도전과 반응 플롯, ③ 진화 플롯, ④ 대변혁 플롯, ⑤순환 플롯, ⑥ 무한가능성 플롯 등이다 (최항섭 외, 2006).

돌봄을 담당하는 이민노동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는 “전통 가치로의 실용적 적응”이 지배적인 모델이다. 돌봄과 교육에서 공적 서비스가 확대되지 않으며, 전통적 가족규범의 압력이 강하게 지속된다. 경제회복이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계층 격차는 확대되며, 여성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젠더불평등의 수준도 상이하다. 많은 시민들은 현실적으로 자녀 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지만, 공적 돌봄 서비스나 가족지원 정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 가족 규범의 테두리 안에서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예를 들면, 조부모 등 가족들의 비공식 돌봄에 의존하거나, 기혼여성의 노동시간 조절 또는 자녀양육 필요에 따라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등). 전통 가치와 신념이 강화되면서 사회집단 간 의견 차이와 분리가 심화되며, 이민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세 번째는 “각자도생 사회 속 위험가족”³⁾ 시나리오라고 표현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복지, 공적 사회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개개인이 시장에서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며, 돌봄 서비스도 사사화된다. 계층 불평등, 출신 배경에 따른 격차가 확대되며 곳곳에서 사회적 불안이 표출된다. 경제적 어려움과 돌봄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되며, 가족생활이 개인의 책임에 고스란히 맡겨진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에 그대로 노출된다. 전통적 가족규범의 압력이 약화되면서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적 선택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안전판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화된 삶의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진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밖이 두려운 코콘/요새 가족”⁴⁾으로 요약된다. EU Family Platform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특수한 상황, 즉 이민을 적대시하고 외부의 위협을 차단함으로써 유럽 사회의 삶의 기준이나 가치를 방어하려는 이른바 ‘유럽 요새(Fortress Europe)’로 표현되는 경향을 시나리오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국가에서도 반(反)이민정서, 민족주의 또는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외집단(out-group)의 위협에 대한 반감과 불안이 극대화되는 동시에 내집단(in-group)의 동질성과 공동운명체 신념이 강조되는 상황이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가족생활의 측면에서 본다면, 위협과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가족을 안전한 울타리로 삼으려는 ‘코콘(고치) 가족’, 친족이나 가족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생활방식이 나타난다. 국경 안에서 국민을 위한 돌봄 지원과 사회안전망이 일정한 수준으로 제공되지만, 이민은 제한되며 외국인·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수준은 매우 낮다. 가족 안에서 정서적 친밀성과 개인에 대한 존중, 젠더 평등이 선택적으로 형성될 수 있지만,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래가족 시나리오 분석들은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과 거시 변동,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 국가 정책과 시민사회의 대응, 개인의 행동 양식에 따라 가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3) ‘위험가족’이라는 표현은 장경섭(2011))의 논의에서 따온 것이다.

4) 코콘 가족(cocoon families), 요새 가족(bastion families)이라는 표현은 유럽의 가족유형을 부부 간 상호작용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연구에서 따온 것이다. 요새 가족은 가족관계가 통합적이면서 규범적 통제와 폐쇄성이 강한 유형이라면, 고치 가족은 요새 가족에서 성별 분업이 약화되고 보다 친밀한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Kellerhals, Jean, E. Widmer, and R. Levy, 2004, *Mésure et démesure du couple-Cohésion, crises et résiliencie dans la vie des couple*, Paris, Payot.; Wall et. al, 2010, p.165에서 재인용함). 여기서는 이러한 의미를 비유적으로 확장하여, 유럽이라는 지역 또는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경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통합과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대신 외부의 타자에 대한 적대감과 불안을 강화하는 시나리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3. 가족 변동의 경로 분화?: 제2차 인구전환과 젠더 평등

1) 제2차 인구전환과 가족 다양성

미래가족 시나리오 분석들은 중장기적 전망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많은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런데 다양한 시나리오의 함의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들이 등장한다. 미래 가족 시나리오는 가족의 미래 모습이 특정 방향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하는가? 다양한 시나리오로의 분화는 특정 시점에서 내려진 선택의 결과인가, 혹은 국가(혹은 지역)들이 처해있는 상이한 조건(혹은 경로)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인가? 사회 양극화와 계층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한 국가 안에서도 생활조건이나 문화에 따라 상이한 가족 형태들이 확대된다면, 각기 다양한 가족의 차이는 미래에도 계속 확대될 것인가?

20세기 중반 산업사회의 가족 변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거시적 수렴 이론의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확대가족은 핵가족으로 변화하며, 부부중심의 핵가족이야말로 산업사회에 ‘적합한’ 가족형태라고 보았다. 하지만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20세기 후반, 그리고 21세기 사회에서 핵가족은 더 이상 지배적인 가족형태가 아니며, 1인가구의 증가, 비혼·만혼의 확대, 제도적 결혼 및 법률혼의 약화, 가족의 탈전통화 등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유럽과 북미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20세기 후반 이후 가족 변화를 설명하는 지배적 개념은 ‘제2차 인구전환’이며, 산업사회형 핵가족의 약화, 개인의 자유와 가치 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그 핵심 동인으로 논의되어 왔

다. 제2차 인구전환이론은 개인이 더욱 강조되면서 가족이 약화되는 가치관의 변화, 전반적으로 비혼·만혼화 및 출산율 하락이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전 세계가 수렴할 것이라는 전망과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제2차 인구전환’은 개념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다의적 해석과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학자들은 거시적 발전이론, 수렴 이론적 접근을 비판하며 국가별 차이를 비교하고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제도적 요인 또는 문화적 요인에 따라 가족의 변화가 상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령 마이어(Mayer, 1997)는 유럽 가족의 다양한 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복지국가 체계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이념형)을 제시하고, 제도적 구조가 다르다면 생애 경로도 수렴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레허(Reher, 1998)는 가족주의라는 ‘강한’ 연대에 의존하는 남유럽과, ‘약한’ 연대가 작동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수준이 높은 북유럽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마이어가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면, 레허는 각 사회별로 상이한 발전의 기본조건을 더 강조하고 있다.

2차 인구전환이론은 역사적 배경 위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 이론이 등장한 1980년대만 하더라도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남유럽보다 낮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양성으로의 수렴(convergence toward diversity)’ 논리가 제시되었다. 유럽의 국가들이 공통의 전환 과정에 놓여 있으며, 국가별 차이는 각기 전환의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각 국가 내부의 다양성은

더 커지며 '표준화'된 생애경로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화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존 연구들의 분석 결과는 개인중심 가치관의 확산이나 개인화의 과정이 단선적으로 진행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특정 국가에서는 성인기 가족형성에서의 다양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확장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유럽 전반의 가족변동과 정책 상황을 다루는 보고서(Kuronen, 2010)에서도 일반적 트렌드와 확산과 더불어 가족 다양성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즉, 초혼과 자녀출산 연기, 혼인율 감소, 이혼율과 재혼율 증가 등으로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한 결과 '중간계급 핵가족'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가족의 양극화 및 격차도 확대되며, 새로운 가치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족생활이 지속되는 현상, 즉 가족다양성과 가족에 따른 격차의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가족 가치관과 가족관계, 친밀성 등은 사회계층, 생애주기, 코호트 등 다른 변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Wall et. al, 2010).

2) 젠더평등주의와 젠더 혁명

가족의 변화는 거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또한 행위자 요인, 즉 국가, 개인, 시민사회 등의 대응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미래가족 시나리오에서는 거시적 환경 변화와 국가정책의 대응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도 개인의 자유와 새로운 관계의 추구, 친밀성의 새로운 형태, 교육자본 형성과 경력 추구 전략, 가족 가치관 등은 가족생활을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연구들은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가족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과 경력의 추구, 그리고 젠더 규범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젠더 혁명'과 '젠더 평등주의(gender egalitarianism)'는 이러한 변화를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다. 여성들이 단기적인 일자리에 들어가 가구소득에 기여하는 부차적 노동자가 아니라, 장기적 경력을 기대하며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독자적 노동자로서의 사결정을 내리게 되며, 한마디로 '일자리에서 경력으로의 변화(from job to career)'가 일어났다. 여성의 경력 추구는 기존의 가족생활과 관계, 가족주기를 재편하는 혁명적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Goldin, 2006; England, 2010).

Goldscheider & Sassler(2018)는 젠더 혁명을 2단계로 구분하였다. 젠더 혁명의 전반부에서는 여성의 삶이 주로 변화하는데, 더 많은 여성들이 더 좋은 직업을 위해 인적 자원을 쌓는 데 적극적이며, 생애 대부분을 고용상태에서 보낼 것이라는 기대가 일반화된다. 젠더 혁명의 후반부는 남성들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 즉 남성들의 가족과 양육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여 불균형이 해소되는 시기로 설정된다. 그런데 젠더혁명의 후반부는 또한 사회 불평등이 확대되고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시기와 중첩된다. 사회 양극화는 가족형성 과정에서 격차를 만들어 내며, 결혼과 자녀출산은 교육수준이 높고 안정적 직업을 가진 중상층이 누릴 수 있는 지위제가 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21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젠더 혁명, 젠더 평등주의의 확산에 장애물이 될 것이며, 젠더평등은 특정 계층에 국한될 것이라는 비관적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⁵⁾

젠더 혁명, 젠더평등주의의 등장은 일반적으로

전통적 가족중심 가치에서 개인중심 가치로의 변화와 동시에 진행된다고 설명된다. 그러나 평등하게 경력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등장이 반드시 가족의 축소, 개인가치에 의한 가족가치의 잠식으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Esping-Andersen & Billari (2015)의 분석에 따르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생애 취업을 추구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증가한 첫 번째 웨이브에서는 이 여성들이 비혼,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다수 국가에서 출산율은 2005~2010년에 다시 높아졌으며, 특히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에서는 20년 이상 합계출산율이 1.8을 넘어서고 있다.⁶⁾ 특히 출산율은 성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상승하였다. 출산율 반등(U자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첫째, 2차 인구전환이 가장 뚜렷했던 국가에서 회복이 나타났으며, 둘째 고학력 취업 여성이 출산율 증가의 변화를 이끌었다. 이러한 변화는 젠더평등주의가 높은 출산율의 전제조건(McDonald, 2000)이며 젠더평등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가구형성율이 높다(Sevilla-Sanz, 2010)는 기존 논의들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들은 ‘다중평형’이론을 통해 젠더평등주의(gender egalitarianism)가 지배적 규범이 된 사회에서 고학력 취업여성들은 안정된 파트너십과 자녀출산을 선호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여성의 생애 취업 참여와 젠더평등주의의 확산을 불가역적인 변화이자 사회적 진화의 과정으로 설명

한다는 점에서 Esping-Andersen & Billari(2015)의 논의는 풍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몇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통적 평형상태(전통적 가족)가 깨어진 후 새로운 평형상태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젠더평등주의’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중요한 동인이라는 설명은 젠더평등주의가 사회 전역으로 확산된 성공 사례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여전히 젠더평등주의가 지체된 지역이나 국가의 특성과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파트너십 형성과 자녀 출산, 즉 초기 성인기 진입 단계의 생애사건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 성인기가 인구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과학기술 및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과 결혼의 연령구범은 상당히 약화되었으며, 수명연장과 더불어 생애 전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친 파트너십이 형성과 해소를 반복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즉 ‘자녀출산과 안정적 파트너십’만을 분석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역설적으로 전통적 가족 모델에 고착될 우려, 젠더평등주의가 가져올 다양한 파트너십과 친밀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4. 나오며: 한국의 개인화와 가족 다양성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화, 제2차 인구전환 등 가족변동의 주요 개념들은 산업화 시대의 핵가족을 넘

5) Cherlin(2014, 2018)은 젠더 혁명 후반기가 교육수준이 높은 중간계층 이상 가족에서만 실현될 수 있으며, 전통적 남성직종(블루칼라)의 쇠퇴와 평가절하(소득 감소)로 생계부양 능력을 상실하게 된 중하층 남성들은 결혼시장에서 주변화되고 또한 전통적 젠더 규범(젠더 본질주의)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불평등과 가족정책의 부재는 젠더 혁명의 후반부 완성을 지체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Goldscheider & Sassler, 2018). 남성 중에서도 젠더평등주의 지지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나 계층지위에 따라 차이는 있더라도 더 많은 남성들이 결국 가족이나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을 원한다는 것이다.

6) 반면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등이다.

어서서 가족의 역동성과 가족 다양성이 더욱 확대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래 가족 시나리오는 가족 변화의 거시적 조건과 행위자 요인, 그리고 정책적 선택을 가족 변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바라본다.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가족 변동은 이러한 서구 이론들의 연장선상에서 보편적 흐름 속에 위치하는 동시에, 그 속도나 범위 면에서 서구의 경험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경로를 구성하는 측면도 있다.

개인화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서구와는 달리 한국 사회가 경험해 온 압축적 현대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 서구의 역사에서는 산업화와 시민혁명을 통해 개인이 정치사회적 주체로 확립되는 1차 현대가 나타났다면, 한국은 산업화의 성공 이후에 뒤늦게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개인주의 규범이나 태도가 지체되었다는 논의들이 있다.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 혹은 “위험회피적 개인화”(Chang & Song, 2010; 심영희, 2011; 장경섭 2011)를 강조하는 논의들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개인화와 가족 변동이 개인주의 규범의 영향보다는 경제 위기와 불안정한 사회 재생산 구조의 산물이라고 분석한다. 비혼이나 만혼, 저출산 등 서구 사회와 유사한 탈가족화 현상이 한국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제체제의 불안정화가 야기한 삶의 불안정성과 위기에 직면하여 강요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탈가족화 현상은 개인주의적 태도나 규범이 부재한 채 오히려 가족지향성은 높은 모순적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심영희, 2011:26-27).

한국의 개인화 경로 특성에 대한 분석과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가 지나치게 경제결정주의적인 설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1세기 가족변동에서 행위자 요인, 특히 제2차

인구전환, 젠더평등주의와 다중평형, 젠더 혁명 등 많은 논의들이 주목하고 있는 여성의 생애 변화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에서 여성의 고학력화는 서구보다 짧은 기간 안에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변화의 동인은 딸의 학력과 인적 자본 형성에 아낌없이 투자한 부모들의 선택이었다(사사노 미사에, 2021). 이처럼 급속한 여성의 고학력화에 비해 노동시장의 성별분리 구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처해있는 위험과 불안정성 때문에 독자적 생애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기존 성역할로의 순응 또는 여성의 자율성 부재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홍찬숙은 서구 사회에서 역사적 시차를 두고 일어난 전업주부화와 탈전업주부화의 과정에 한국에서는 압축적으로 동시 전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역할 규범에 있어 유교적 가족주의와 시민적 개인주의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홍찬숙, 2017).

최근 한국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성인기 이행 경험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과 지그재그식의 이른바 ‘요요(YOYO) 이행’은 개인화 경로가 결코 단선적이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청년 남성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실을 얻을 수 있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취업 빙하기를 겪으면서 자신들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청년 여성들의 경우 근대화로 확대된 교육수준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성 격차 지수가 매우 높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홍찬숙, 2022: 55, 58, 69). 한마디로 지금 한국에서 개인화 과정, 개인화 전략은 위험성이 매우 높다.

경제위기 속에서 강요된 것이든 자율적 개인의

개인주의 규범에 따른 선택이든 — 사실 개인화 개념은 이 두 가지 과정의 동시적 혹은 순차적 이중과정을 강조한다 — 개인화는 한국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벡의 주장대로 이는 불가역적인 과정이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가족 다양성, 탈가족화 현상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22). 장래가구추계에 나타난 동향을 요약하면, 첫째 가구규모가 축소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며, 둘째 유배우 인구가 점차 감소함으로써 혼인 지위가 다양화되고, 셋째, 가구주 지위도 다양화되어 여성 가구주, 미혼 가구주가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가족 다양성은 기존 규범의 해체 또는 이탈이라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없는 더 큰 역동성을 함축하고 있다. 1차 현대와 2차 현대의 다층적 변화들이 압축되어 나타난 개인화 과정 속에서 가족 다

양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의 압축적 현대화로 인해 개인화 경로의 위험과 불안정성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개별 시민들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성과 위험 요인을 덜어줄 수 있는 가족 정책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랜 동안 전통적 가족을 기준으로 삼아온 법과 제도, 정책 기준들이 오히려 취약한 시민들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포용적 가족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궁극적인 시장 사회는 자녀 없는 사회’(Beck & Beck-Gernsheim, 1995: 116)라는 진단은 당면한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 강홍렬 외(2006). 정보화로 인한 가족관계와 가족역할의 미래변화 총괄보고서 - 가족기능 변화와 미래가족 전망.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3-01).
-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2019).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650>).
- 변수정·박종서·오신휘·김혜영(2017).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성 제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벡, 울리히, 엘리자베스 벡-게른스하임(1999).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새물결 (The normal chaos of love, Polity Press, 1995).
- 사사노 미사에(2021).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 - 성별 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심영희(2011). '21세기형 공동체 가족' 모델의 모색과 지원방안: 2차 근대성과 개인화 이론의 관점에서. 아시아여성연구, 50(2), 7-44.
- 장경섭(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63 - 90.
- 장혜경·김영란·김소영·이아름·안경희·류연구·이한나(2014).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김은지·김영란·김소영·선보영·최진희(201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I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진미정(2015). 한국 가족정책의 특수성과 과제: 미시공공성과 공동체성. 최연실 외 <한국가족을 말한다. 현상과 쟁점>. 도서출판 하우.
- 진미정·한준·노신애(2019). 2030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가치관의 잠재유형과 한국사회 인식 및 개인적 미래전망의 관련성. 가족과 문화, 31(1), 166-188.
- 통계청(2022).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보도자료).
- 홍찬숙(2017). 동북아 가족주의 맥락에서 본 한국 여성 개인화의 세 시나리오. 경제와사회, 113, 147-172.
- 홍찬숙(2022).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 세대 및 젠더 갈등의 사회적 맥락. 세창출판사.
- Beck, U., & Beck-Gernsheim, E.(1995). The normal chaos of love, Polity Press.
- Beck, U., & Beck-Gernsheim, E.(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London: Sage.
- Beck, Ulrich and Edgar Grande. (2010).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the cosmopolitan turn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nd research",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409~441.
- Berrington, Ann & Agnese Vitali.(2016). "What will the family of the future look like?" (<https://www.weforum.org/agenda/2016/05/what-will-the-family-of-the-future-look-like>, 검색날짜: 2021. 3. 20).
- Chang, Kyung-Sup., & Song, Min-Young.(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40-565.
- England, Paula.(2010). "THE GENDER REVOLUTION - Uneven and Stalled". Gender and Society, 24(2), 149-166.
- Esping-Andersen, G. and F. Billary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 Goldin, Claudia.(2006).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Working Paper 11953,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http://www.nber.org/papers/w11953>)

- Goldscheider, Frances Kobrin and Sharon Sassler.(2018). "Family Policy,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the Gender Revolution", in Naomi R. Cahn, June Carbone, Laurie Fields DeRose and W. Bradford Wilcox eds., *Unequal Family Lives : Causes and Consequences in Europe and the America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pella, Olaf, Liederkerke, A.-D. and J Bergeyck(2011). Foresight Report: Facets and Preconditions of Wellbing of Families, Family Platform(EU).
- Kuronen, Marjo ed.(2010). Research on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State of the Art. Family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Jyväskylä. (FAMILYPLATFORM: funded by the European Union's 7th Framework Programm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7066399>)
- Lesthaeghe, Ron J.(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 Lesthaeghe, Ron J.(201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concise overview of its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1(51), 18112-18115.
- Mayer, Karl Ulrich.(1997). Notes on a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life courses. *Comparative Social Research*, 16, 203-226.
- McDonald, P.(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1-15.
- Montgomery, A.(2008). "US Families 2025: In Search of Future Families", *Futures* 40: 377-387.
- OECD.(2012).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 Reher, David, Sven.(1998). Family ties in Western Europe: persistent contras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03-234.
- Sevilla-Sanz, Almudena (2010). Household division of labor and cross-country differences in household formation rat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3 (1): 225-249.
- Wall, Karin, M. Letao & V. Ramos.(2010). Social Inequality and Diversity of Families: FamilyPlatform Working Report.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Lisbon.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7176066_Social_Inequality_and_Diversity_of_Families)